

재고물량 거의 소진 국산약재 전반적 오름세 값 비싸고 ... 물량 귀하고 ... 살 사람도 없고

여름철 비수기까지 겹친 한약시장경기는 여전히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장 상인들은 올 상반기 약재시장 경기에 대해 고개를 흔들며 탄식. 그만큼 올 상반기는 최근 몇 년 사이의 불경기 중 가장 심각하다.

국산한약재 재고물량은 어느 정도 다 소진된 상태로 시세도 전반적으로 오름세 경향. 이미 생산농민들 손에서는 떠나 중간상인들 손으로 옮겨간 국산한약재 시세는 이맘때쯤이면 그래서 가격 등락폭이 심할 수 있다.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인들에 의해 가격 울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 택사도 그 대표적 품목 중 하나다. 남쪽지역에서 생산되는 택사도 상인들에 의해 일부 사재기 돼 있어 향후 택사 시세 오름세를 점치게 한다.

7월초 현재 출하돼 나오고 있는 약재들은 인진쑤, 익모초 등이며 삼백초, 어성초 등 풀약재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 출하돼 나올 품목. 8월 중순부터는 형개, 박하, 향유 등 약재가 수확될 예정이다.

구기자

경기부진으로 매매도 안되고 물량도 많지 않다. 시세만 근당(6백g기준) 1만7천원선으로 상보합세 형성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1만6천원에도 사려는 사람은 없는 실정. 7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진도산이 물량은 없지만 근당 2만원선을, 청양산은 근당 1만7천원선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달 8월부터는 청양산 구기자 햇것이 출하될 예정이지만 수확하기까지의 기상여건에 따른 변수가 많고, 예년보다 재배면적이 감소한 탓에 수확량 증감을 점치기엔 아직 이르다.

맥문동

햇것 출하가 마무리된 맥문동을 수확량은 예년수준. 햇것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상보합세를 기록해온 맥문동 시세에 거품이 빠지고 안정세로 들어서는 듯. 7월초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맥문동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 거심이 1만

1천원(상품), 9천원(중품) 선이며 밀양산 거심은 근당 1만3천원(상품), 1만5백원(중품) 선으로 햇것 출하되기 전 시세보다 약 4천원 폭이나 가격이 빠졌다. 근당 1만1천원씩 하던 막맥 시세도 7천5백원 대로 하락. 그러나 맥문동 시세가 빠지면서 상품의 질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고 보면 실질적인 시세하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지황

근당(6백g 기준) 2~3천원선이던 생지황 시세가 높게는 2만5천원선까지 거래될 정도로 좋다보니 지황 재배면적도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하우스 안의 생지황은 지금부터 조금씩 생산돼 나오고 있는 상황. 노지재배한 생지황 출하 시기는 다음달부터나 본격 생산돼 나올 예정이다. 7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생지황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약 7~8천원 선.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시기에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월초 현재 생건지황 근당 도매시세는 1만원(상품), 8천원(중품), 3천5백원(하품) 선으로 올 봄

보다 다소 하락세 경향을 띄고 있다.

중국산 지황의 경우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황 가격이 최근에는 kg당 2\$을 넘어서고 있다. 거기에다 국내의 중국산 지황의 재고가 업체마다 고갈되어 가격이 계속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지황은 생지황으로 거래되고 있고 건지황이나 숙지황으로 제조하기에는 생산원가가 너무 높아 실제로는 국산지황은 사용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입지황을 원료로 하는 모든 숙지황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오미자

물량이 많지 않다. 산지는 물론이고 중간상인들에게서도 물량이 거의 없어 근당 2만5천원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산지에서 자연산 오미자를 소량 갖고 있기도 한데 자연산의 경우 근당(6백g기준) 2만원선으로 재배 오미자에 비해 시세가 약하다. 자연산은 재배산에 비해 육이 적기 때문. 한의원 등에서 한약재로 소비되는 비율보다는 여름 음료대용으로 가정에서 한방차 용도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미자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작약

상보합세. 7월초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9천원(절, 상품), 6천5백원(절, 중품), 5천원(절 하품) 선으로 꾸준한 상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 봄 시세보다 상품의 경우 약 2천5백원 폭으로 꺾음 올랐다. 중품과 하품은 약 5백원 가량 소폭 오름세. 특히 상품 물량이 귀한 편. 작약값이 바다세를 치기 시작한 지난 5~6년 전부터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작약 출하량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상품성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다.

하수오

하수오 값이 오를 것을 점치고 물량을 잡아놓은 상인들로 인해 하수오 시세가 한동안 상보합세를 이루다가 국산과 비슷한 수입산 하수오가 대량 반입되면서 국산 하수오 값이 한풀 주저앉았다. 최근 다시 국산당 등 주류업체 및 식품업체 등으로 국산 하수오 물량이 대량 납품 들어가면서 국산하수오 시세가 다

소 상승세 경향. 7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백하수오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절 상품이 9천원, 중품이 6천원, 하품은 근당 4천원선이다.

지실

중지실 물량은 많지만 애지실은 물량이 없다. 근당(6백g기준) 1만원 선이던 애지실 시세가 수확기 장사군들에 의해 근당 6천원선까지 폭락하자 생산농민들이 수확작업을 기피하면서 올 애지실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고, 값을 더 쳐 주면서 수확작업을 재개 했을때는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없었던 것. 7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근당 도매시세는 애지실 1만1천원, 소지실 1만원, 중지실 7천5백원 선이다.

택사

택사는 여름철에 주로 많이 소비되는 일명 '여름약재'. 그래서 평상시 근당(6백g기준) 3천원 선이던 택사가 여름이면 6천원선까지 오르기도 한다. 현재 택사 재고물량은 있으나 몇몇 상인들에 의해 사재기 돼 있는 상황. 시세도 올 봄과 비교해 약 1천원 폭으로 올랐다. 7월초 현재 서울약령시장 안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4천원(통), 4천5백원(절) 선이다. 당분간 택사 상보합세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름이 지나면서 시세는 주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정희>

중국약재 시장동향

2004년 하반기 중약재시장은 전체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장도 서서히 밑바닥 경기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각 약재별 시세를 전망해 본다

▶야생류 약재

지속적으로 물량부족과 가격상승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이후 시세 역시 매우 낙관적이다.자연산 채취 약초는 야생자원이므로 최근들어 시장 출하물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격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품목의 경우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예를들어 야생 시호, 야생산삼, 수질, 저령, 중루, 백급, 섬서, 천산갑, 우맹, 구향충, 오초사, 선퇴, 봉방, 동충하초, 천연우황, 사향, 용의, 옹공, 구보, 용골, 영양각, 천룡 등의 등의 품목은 근년들어 모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탔다. 그중 수질 가격은 상반기 15.93\$에서 최근 24.41\$선까지 상승했으며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저

령도 5.64~6.25\$선이다.

▶재배종 약재

일부는 상승, 일부는 하락, 또 일부는 안정세를 유지하며, 다소 상승하는 품목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매매부진으로 대부분의 재배종 약재 가격이 하락했으며 일부 품목은 아예 바닥세까지 떨어졌었다. 따라서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없으나 농민들의 약초재배 기피로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시세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면 판람근, 당귀, 고삼, 백작약, 지모, 대청엽, 초결명, 하고초, 금은화, 괴화 등의 품종이 현재 비교적 가격이 낮다.

▶비인기품목

비인기품목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량이 적어서 관심이 적은 품목들에 대한 상인들의 관심이 적다보니 이는 시장엔 늘 부족하여 종종 품귀현상이 나타난다. 예를들어 설단, 사태, 상피, 오곡충, 길상, 백초상, 귀전우, 토근피, 자초화, 용연향 등이다.

▶대다수 약재와 식용겸용 품목들

대다수의 약재와 식용겸용 품목들은 시장 수요도 증가하여 시세도 순조롭다. 예를들어 산약, 백합, 건강, 구기자, 소회향, 백호초, 계원육, 적소두, 백편두, 흑지마, 의이인, 연자, 검실, 홍조, 정향, 육계, 복령, 은이 등이다.

▶보의 보건류의 약재

보의보건류는 수요가 왕성하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의식강화로 특히 사스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 예를들어 인삼, 서양삼, 숙지황, 하수오, 파극천, 자오가, 육종용, 동충하초, 영지, 녹용, 흑마의, 해룡, 해구신, 자하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용도가 다양화된 일부품목

일부품목은 용도가 다양화되면서 시장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또한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산조인, 산사, 맥문동, 어성초, 산두근, 초결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Chinaherb21>